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김초록 (Cho Lok Kim)*

백은령 (Eun Ryoung Pai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effect of Individuality-Relatedness of Christian Youth on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The paper concentrated on changes regarding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caused by Christian youths' transition of social position from students, workers to job seeker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Relatedness has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as sub-parameter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Youth students' Individuality-Relatedness has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Loneliness as sub-parameter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Youth Workers' Individuality-Relatedness affected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as sub-parameter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Individuality-Relatedness among Youth preparing for employment has significant effects solely on social adapt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Relatedness has significant importance to overall psychological-social adaptation. When Individuality-Relatedness has well developed, Christian youths can develop their social adaptation well and if they are belong somewhere, they can also develop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Key Words : christian youth,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church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석사학위 졸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clqp@naver.com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erpaik@chongshin.ac.kr

2019년 07월 24일 접수, 07월 24일 최종수정, 07월 31일 게재확정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019년 5월 17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중 올해 1분기 통계에 포함된 구직 단념자, 일명 실망실업자는 21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사는 있지만 경기 위축과 개인 사정 등에 의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비율은 출산을 감소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와 가혹한 경쟁에 노출되어 저항, 반항, 유희, 자유, 도전과 같이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 대신 ‘생존(survival)’이 가장 중요한 모토로 등장하여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되고 있다(김홍중, 2015). ‘헬조선’에서 태어났고 ‘이번 생은 망했으니 ‘올로(you only live once)’를 추구하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도 놓치지 않는 삶, 가끔의 ‘탕진잼!’은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문장에 등장하는 신조어들은 변화된 청년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청년의 생존은 ‘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발달기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Arnett의 이론과 비교하여 한국 사회의 20대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본 김은정(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20대는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인기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부모나 사회의 감시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미성년의 모습으로 성인이지만 통제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교회 안의 20대 청년들의 상황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진행한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 청년의 1/3에 해당하는 28.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응답자의 45.5%가 ‘학업·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으며 등록금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서야 하고, 취업난을 뚫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교회에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기독신문, 2017.11.03. 17:43).

1) 탕진잼: 소소하게 낭비하며 느끼는 재미(네이버 국어사전)

이처럼 이 시대 청년들의 삶과 경험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의식전반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있다. 즉 삶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고 응답한 기독교대학생은 20.3%였으며, 비기독교 대학생은 24.8%였다.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기독교대학생 21.7%, 비기독교 대학생 24.1%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기독신문, 2017.11.03. 17:43). 이 시대 청년들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현상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부여하는 삶의 의미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청년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시도하며 용기와 열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이다(최준호, 2016). 기독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확신하여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한 청년”을 뜻한다(서은숙, 2016: 6). 즉,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살아내는 시기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지훈, 2011).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참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별성-관계성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성인기로의 진입 시기에서 자신과 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욕구나 주변의 요구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주목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자기개념은 자기와 관련된 신념과 지식들의 표상체계로서 자기와 세상을 지각하는 참조체계이다. 이러한 자기개념은 자기(self)와 타인(other)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지향적이냐, 타인 지향적이냐에 따라 크게 개별성과 관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조운경, 2002)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기독교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개별성-관계성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특히 젊음의 열정과 용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소명의 시기이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연약함으로 공동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년기의 개별성-관계성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은 일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은 어떠하며 이것이 청년들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기독 청년의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에 따라 이들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떠한 양상을 보이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본인 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계와 교회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개별성-관계성

(1) -

인간은 개별적 자아를 가진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 인간관계는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다른 복합체간의 상호작용이다. 자기개념은 ‘자기와 관련된 신념과 지식들의 표상체계’이자 ‘자기와 타인을 지각하는 참조체계’로 개별성과 관계성으로 나눌 수 있다(이시은, 2010: 779). Woike(1994: 김동직, 1999)는 자기개념의 인지 구조를 분리지향(separate orientation)과 연결지향(connected orientation)으로 나누었다. 분리 지향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지각한다. 이러한 지향은 주도성(agency)을 조장하고 유지하며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지각을 포괄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추구한다. 반면, 연결 지향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적이고, 우호적이다. 타인과의 연결이라는 측면에

서 자신을 지각하며 연대성(communion)을 추구한다.

김동직(1999)은 개별성의 특성들은 모두 자기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자신을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규정하며 강한 자의식과 자기와 타인이 별개의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관계성은 “타인과의 연대와 관계추구”를 강조(Guisinger & Blatt, 1994: 108)하는 타인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관계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밀이나 친화란 타인의 배척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Boyatzis, 1973; McAdams & Constantian, 1983; 김동직, 1999)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정은이, 2002).

이러한 개별성이나 관계성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여도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Blatt & Schichman, 1983; 조운경, 2003: 94),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관계변인이다(김동직·한성열, 1998).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둘 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 둘 다가 높은 집단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심리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직, 1999; 조운경, 2002, 재인용).

이 둘은 실제로 인간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으로 상호작용하며 둘은 끊임없이 “변증법적 발달”을 해 나간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Guisinger & Blatt, 1994; 김동직, 1999; 정은이, 2002; 송경재, 2007: 2). 즉, 개별성과 관계성은 대인관계 맥락과 자기 정의, 자기와 세상의 관계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동직·한성열, 1998; 이시은, 2010). 이러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송경재(2007)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별성을 요구하고 선호하는 환경에서는 개별성이 순기능적 역할을, 관계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관계성이 순기능을 할 것이기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하였다.

(2)

-

분리지향적인 자기 개념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하는 개별성과 연결지

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하는 관계성은 예수가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으로 언급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 지을 수 있다(마 22:34-40; 막 12:28-31; 눅 10:25-28). 김지훈(2011: 16)은 기독교인의 개별성을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로 있고 이는 타인과 독립되어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독교 핵심인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인의 관계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김지훈(2011)의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높은 영성을 나타냈다. 즉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개별적인 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영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현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기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공동체에 강하게 의지하는 시기이다. 이에 교회공동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의해 신앙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 시기는 공동체와 사역에 대한 강한 열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 내에 불합리함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년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부르심 앞에 강력한 결단을 내리는 순수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나이는 어릴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또 시도할 수 있는 시기로서, 용기와 열정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을 위해 선택되는 소명의 시기요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이다(최준호, 2016).

이러한 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별적인 시간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영향이 중요하다.

2. 심리·사회적 적응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 사물에 대한 태도, 관습, 가치관 등을 배운다. 또 가족 밖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직면하여 그 사회의 표준에 따라

행동하며 환경에 맞추는 능력을 발달시켜 간다. 이러한 과정을 적응이라고 한다(정은이, 2002). Lazarus(1976)은 환경의 욕구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수동적 측면과 자신의 행동양상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반응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측면으로 나누었다(Moorehouse, 1991; 송경재, 2007: 4, 재인용). 수동적 측면에서의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춰가는 소극적인 적응으로, 본래 생물학에서 말하는 순응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환경 변화에 사용하여 개체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켜 개체의 상태를 항상성 있게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능동적 측면에서의 적응은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인 적응이다.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적응은 개체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개체의 요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일컫는다(정은이, 2002).

또, 김정은·정옥분(1998)은 적응을 외적 적응과 내적 적응으로 나누었다. 외적 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타인과 협동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말한다. 내적 적응은 한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사회 환경이나 개인의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도 잘 대응한 상태이며, 자신과 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잘 유지하여 자신의 욕구나 주변의 요구의 상호작용에도 적합하게 피드백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1)

심리적 적응은 개인적인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옥선화, 1989). 즉, 건강과 객관적, 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김동직(1999)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자기만족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것을 심리적 적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은이(2002)는 개체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로 정의하며 개체의 요구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김동직(1999)의 연구와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을 채택하였다.

(2)

심리적 적응에 비해 사회적 적응은 보다 사회와 더 깊은 관계성을 갖는다.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로서, 사회규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뜻한다. 또,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정도, 또는 개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환경 내에서 해내는 역할 수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와 가정 내 자기 역할 수행 정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생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Grossman, 1977; 김경은·정옥분, 1998; 곽호근, 2007). 최준호(2016)는 사회적 적응을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사회적 역할의 수행능력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인성이나 신념, 가치관, 삶의 양식 등의 형성과 관련된 사회화 과정이며, 일생을 통한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3. 개별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계

(1) -

김동직(1999)은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조사했는데, 양측 대학생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경우 심리적 적응을 잘했으나 두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개별성은 높지만 관계성은 낮은 집단과 반대로 개별성은 낮지만 관계성은 높은 집단은 고독감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개별성-관계성 모두 높을 때 심리적 적응에 용이하였다.

채정민·이종한(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생활을 통해 관계성을 높이는 것이 적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정은이(2002)는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정도가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위와 같은 연구를 볼 때, 개별성-관계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에 유리하며 개별성-관계성 모두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나 대인관계적인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을 통해 개별성-관계성이 높을 때 심리적 적응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

송경재(2005)는 개별성-관계성과 군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 결과, 개별성 성향은 군 생활 적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성 성향은 군 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는 집단의 결속과 관계성을 지향하고 관계적 경향성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유추하였다. 또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군 생활 적응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독창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자기 신뢰, 확신, 개방적인 특성과 이타적, 관계 지향적 특성을 포함하여 개인의 개성과 집단과의 조화 모두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보여주었다.

위 연구들을 통해 개별성-관계성이 높을 때 사회적 적응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공동체와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상태는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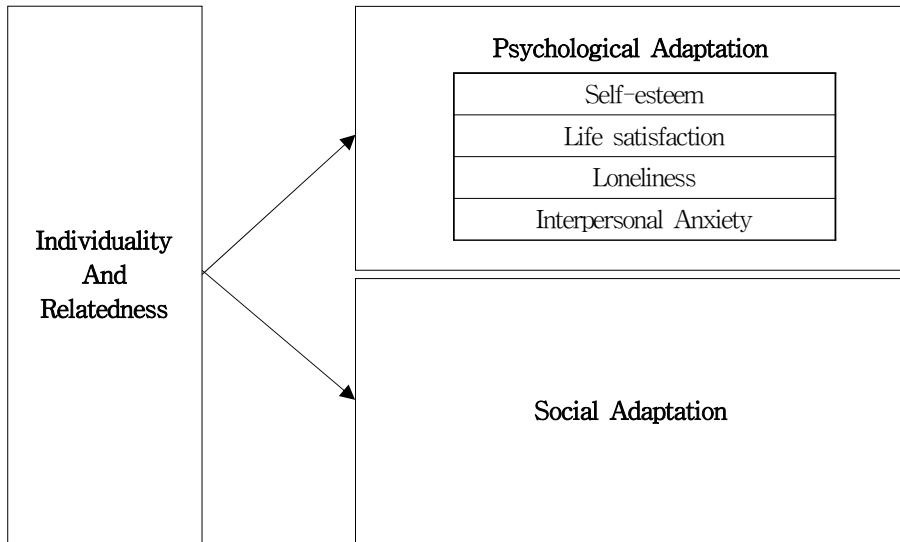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혼 20대(20~29세: 1989~1998년생) 중 기독교 청년이면서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분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임의표집을 통해 기독교청년들에게 배포하고 응답한 내용을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나누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했거나 끝까지 응답되지 않은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62부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개별성-관계성 척도, 심리적 적응척도(자아존중감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 고독감 척도, 대인불안척도), 사회적 적응 척도이다.

(1) : -

본 연구에 사용한 개별성-관계성 척도는 김동직·한성열(199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대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별성의 하위 변인으로 자기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을, 관계성 척도의 하위 변인으로 친밀성, 친화성, 공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직(1999: 46)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개별성 척도 Cronbach's α = .79, 관계성 척도 Cronbach's α =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7로 나왔다.

(2) : ,

①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김동직(1999),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척도를 동일하게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영자(1996)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자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1로 나왔다.

생활 만족감은 Diener, E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정은이(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5로 나왔다.

고독감은 Russell, Peplau, Cutrona(1980)가 개발한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김옥수(1997)가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7로 나왔다.

대인불안은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계수는 .878이었다.

② 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곽호근(200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곽호근(2007)의 사회적응력 척도는 신뢰도 Cronbach's = .91로 매우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Cronbach's = .679로 나왔다. 이는 집단 간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로 표집이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20대 청년들의 개인특성에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 신분, 종교, 월 소득, 거주지,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하였다. 청년들의 개인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45명(27.6%), 여자가 118명(72.4%)으로 나타났다. 평균나이는 24.3세였고, 학력은 고졸 47명(29.0%), 전문대졸 13명(8.0%), 대졸 86명(53.1%), 대학원 졸업 13명(8.0%)이었다. 신분별로는 학생 51명(31.5%), 직장인 69명(42.6%), 취업준비생 38명(23.5%)으로 직장인, 학생, 취업준비생 순으로 많았다. 학생의 경우 전공은 인문사회 31명(19.1%), 사범 계열 4명(2.5%), 이공학계열 9명(5.6%), 예체능계열 6명(3.7%)이었다. 직장인의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는 4명(2.5%), 비정규직 30명(18.5%), 정규직 35명(21.6%)이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평균 12.9개월 동안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0~350만원까지의 범위였으며 평균은 106.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102명(63%),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57명(35.2%)이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 4명(2.5%)이었고,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총 104명(64.2%),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51명(31.5%)이었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Detail	Frequency(%)	Characteristic	Detail	Frequency(%)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47(29)	Sex	Male	45(27.6)
	College Graduate	13(8)		Female	118(72.4)
	University Graduate	86(53.1)	Residential District	Seoul	102(63)
	Grade School Graduate	13(8)		Gyeonggi	57(35.2)
Social Position	Student	51(31.5)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Upper Class	4(2.5)
	Worker	69(42.6)		Middle Class	104(64.2)
	Job Applicant	38(23.5)		Lower Class	51(31.5)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단위: 세, 원)

Characteristic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ge	24.3	2.871	20	29
Income	106.9	103.822	0	350

(2)

기독교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 불안),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를 정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개별성-관계성의 평균은 3.25, 심리적 적응의 평균은 2.77이고, 사회적 적응의 평균은 3.27이다.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Psychological · Social Adaption.

Measure	Sub-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Psychological Adaptation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3.25	0.32	2.43	4.13
	Self Esteem	2.57	0.22	2.00	3.30
	Life Satisfaction	3.10	0.71	1.40	5.00
	Loneliness	2.36	0.21	1.90	2.85
	Interpersonal Anxiety	3.05	0.37	2.07	3.80
	Overall	2.77	0.38	1.84	3.74
Social Adaptation		3.27	0.36	2.30	4.85

2. 조사대상자의 신분에 따른 차이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사회적 적응이 조사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정방법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각 변인들을 비교한 결과,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생활만족감에서만 F값 3.36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e의 사후검정에 따르면 생활만족감에 있어서 학생은 3.20($p>.05$), 직장인은 3.17($p>.05$), 취업준비생은 2.85($p>.05$)으로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순으로 생활에 만족했다(전체평균 3.10).

Table 4 Mean Comparison in Christian Youth's Identity with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logical · Social Adaptation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F Value	Rank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Student	52	3.25	0.31	0.481	W<S<J
	Worker	69	3.23	0.32		
	Job Applicant	41	3.29	0.34		
	Overall	162	3.25	0.32		
Psychological Adaptation	Student	52	2.58	0.24	1.166	W<S<J
	Worker	69	2.54	0.23		
	Job Applicant	41	2.61	0.18		
	Overall	162	2.57	0.22		
	Student	52	3.20	0.61	3.361*	J<W<S
	Worker	69	3.17	0.72		
	Job Applicant	41	2.85	0.77		
	Overall	162	3.10	0.71		
	Student	52	2.41	0.21	1.91	W<J<S
	Worker	69	2.34	0.22		
	Job Applicant	41	2.35	0.16		
	Overall	162	2.36	0.21		
	Student	52	3.08	0.36	1.954	W<S<J
	Worker	68	2.98	0.39		
	Job Applicant	41	3.12	0.33		
	Overall	161	3.05	0.37		
Social Adaptation	Student	52	3.23	0.32	0.676	S<J<W
	Worker	66	3.31	0.39		
	Job Applicant	41	3.25	0.36		
	Overall	159	3.27	0.36		

* $p<.05$, ** $p<.01$, *** $p<.001$

3.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은 모형의 설명력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Interpersonal Anxiety	
t	3.533***	2.410*	4.736***	-.466	6.252***
R ²	.090	.088	.131	.045	.234
adj. R ²	.072	.070	.114	.026	.219
F	5.081**	4.928**	7.705***	2.406	15.716***

* $p < .05$, ** $p < .01$, *** $p < .001$

4. 기독교 청년의 신분에 따른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 .

학생신분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은 모형의 설명력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Youth Students)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Interpersonal Anxiety	
t	3.072**	0.918	3.616***	0.826	2.840**
R ²	.221	.112	.225	.017	.149
adj. R ²	.172	.056	.176	-.045	.096
F	4.542**	2.017	4.640**	0.270	2.80.*

* $p<.05$, ** $p<.01$, *** $p<.001$

(2) - .

직장인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은 모형의 설명력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직장인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Youth Workers)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Interpersonal Anxiety	
t	2.657**	2.187*	3.399***	0.053	4.008***
R ²	.144	.213	.200	.057	.342
adj. R ²	.102	.174	.161	.010	.310
F	3.413*	5.495**	5.091**	1.219	10.577***

* $p<.05$, ** $p<.01$, *** $p<.001$

(3)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사회적 적응은 모형의 설명력과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Youth who are preparing for employment)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Interpersonal Anxiety	
t	0.306	0.944	0.662	-1.913	3.681***
R ²	.047	.045	.031	.150	.297
adj. R ²	-.031	-.033	-.048	.081	.241
F	0.603	0.579	0.392	2.179	5.222**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 기독교 청년들의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에 따라 이들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았다. 기독교 청년의 신분에 따라 각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감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에 따르면 생활만족감은 취업준비생<직장인<학생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고독감,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직장인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 청년의 신분에 따라 양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학생과 직장인에게는 자아존중감과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적응에는 세 집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년의 신분에 따라 생활만족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초록(2018)의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 학생, 직장인 순이었던 것과 달리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 직장인, 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 청년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생활만족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에서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업준비생을 교회 내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채정민·이종한(2004)과 정은이(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기독교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 어떤 문화에서든지 개별성-관계성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채정민·이정환(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집단 모두에서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군 생활 적응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던 송경재(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되어야 하는 시기이기에 높은 개별성-관계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생존세대로 명명되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 청년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성-관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의 개별성-관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깊고 풍성히 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선물이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롬 12:3: 고전 7:17: 엡 4:7)를 확인하는 것과 형제(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1: 살전 5:26)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성도간의 교제는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중대한 발달과업 앞에서 생존해야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청년세대들을 지지하고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는 공동체에 강하게 의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교회공동체가 주는 영향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상이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청년의 1/3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처럼 현 세대에서 교회출석과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은 교회 내의 명백한 문제이다. 출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청년들의 참여가 교회 사역을 위함이 아니라 각 청년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교회의 무너진 권위와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내에서는 친밀한 유대와 소통의 경험은 청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 이후의 모임이나 주중 예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모임을 통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기독교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이 잘 발달되는 것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적응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교육학과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오던 개별성-관계성 관련 연구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독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개별성-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가 서울, 경기 거주하는 미혼 20대 기독교인 남녀로 한정되어 표집 되어 전체 기독 청년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독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호근 (2007).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응의 관계**. 인하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wak, H. K. (2007).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Social Adjustment in Participants of Leisure Spor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김경은·정옥분 (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KIM, K.E., Chung, O.B.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Commuter Coup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 35-49.]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에서의 인지적 특성. **사회과학 연구**, 1, 11-28.
- [KIM, N. J. (1995). *Cognitive Characteristics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1, 11-28.]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D. J. (1999). *The Relationship with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동직·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KIM, D.J., HAN S. Y. (1998). A Study o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Individuality-Related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2(1), 71-93.]
- 김선주 (2015). 고등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실존적 관계맺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소년보호연구**, 29(1), 33-60.
- [KIM, S. J (2015).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xistential Relationships for Enhancing High School Students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Meaning of Life.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29(1), 33-60.]
- 김영희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KIM, Y. H. (2015).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 Dropou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145-175.]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KIM E. J. (2014). Emerging Adulthood as the new developmental stage: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Korea. *Discussion* 201, 17(3), 83-129.]
- 김지훈 (2011). **개별성-관계성과 공동체형성의 관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J.H. (2011).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Community Spirit*. Master's thesis.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김초록 (2018).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C.L. (2018). *The Effect of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Chongshin University, Major of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 김현수·김수정 (2015). 신입사원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산학연계교육*, 7(1), 39-45.
- [Kim, Hyun-Soo, Kim, Su-Jeong (2015). The Effects of Individuality, Relatedn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New Employees. *J. Pract. Eng. Educ.* 7(1), 39-45.]
- 박남숙 (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PARK, N.S (2001). *Developmen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Couples*.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서은숙 (2016). **기독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성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SEO, E. S (2016).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Self-Identity and Resilience*.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ical Major.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 송경재 (2007). 개별성-관계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상담학 연구*, 8(1), 1-12.
- [SONG, G. J. (2007). The Relation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Adjustment of Korean Military Lif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1), 1-12.]
- 육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 학위논문.
- [OK, S.H. (1989). *Study on Familism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이시은 (2010).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서 공격자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77-796.
- [LEE, S. E. (2010). Public Self-Consciousness as a mediator Between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 777-796.]
- 이시은 (2010). 개별성-관계성의 하위집단에 따른 성인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863-1876.
- [LEE, S. E. (2010).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f Self-Esteem in Sub-Groups by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4), 1863-1876.]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 여대 박사학위 논문.
- [LEE, Y. J. (1996).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self-respect and depression and anxie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 장익 (2004). **20대 기독교 청년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국내 석사 학위논문.
- [JANG, I. (2004). *Study on Psychological Maturity of Christian Youths of Twenties. Pastoral Counseling Major*.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JEONG, E. I(2002).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CHO, Y. K. (2002). *A Study on Development of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Scale and Validity - Relationships between I-Consciousness - We-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Dep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상담과 심리치료**, 15(1), 91-109.

[CHO, Y. K. (2003). A Study o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Relationships betwee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1), 91-109.]

채정민 · 이종한 (2004).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CHAE, J. M., YHI, J. H. (2004). North Korean Defectors' individuality-relatedness affecting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9(4), 793-814.]

최준호 (2016). **청년의 신앙성숙도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Choi, J. H. (2016). *Influence of religious maturity in youth on their social adaptation*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ch1204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아시아 경제 2019. 5. 17. “‘취업 접습니다.’ 청년 구직단념 최대...상실의 시대”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711245265872> (검색일 2019.05.17.)

[“‘Quitting my seeking job’ Youth’s abandonment to seek job ever biggest, the age of job loss”. The Asia Business Daily. (2019. 05. 17). Retrieved from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711245265872> (2019.05.17.)
기독신문(<http://www.kidok.com>)(2019.07.07.)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초록 (충신대학교)

백은령 (교신저자/충신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신분에 따라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인 중 자아존중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직장인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인 중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과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사회적 적응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과 직장인의 경우에도 개별성-관계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적응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회와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 - , , ,

